

광주·전남은 이미 '아열대'



후박나무



먼나무 열매



쇠백로



왜가리

가로수 난대수종으로 교체

지구 온난화가 전남지역 가로수 수종을 바꾸고 있다.

해남군은 지구 온난화와 가로수 경관 조성 위해 해남 전 도로변에 대표적 난대수종인 먼나무와 후박나무를 심재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우선 연말까지 18억원을 들여 해남터널~강진군 경계 구간 15.7km 구간에 먼나무 1천833그루를, 해남 교차로~현산 구시천교 18km 구간에 후박나무 1천126그루를 각각 심을 계획이다.

이미 송호리해수욕장에서 땅끝에 이르는 길목에 심어진 후박나무는 붉은 열매에서 풍겨 나오는 이국적인 분위기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해남군이 가로수 수종으로 선택한 먼나무는 잎이 청결하고 윤기가 흐르는 상록수로 대기오염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9월께

열리는 붉은 열매는 겨울이 되면 색깔이 더욱 진해져 멀리서 보면 나무 전체가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 대표적 난대수종인 후박나무는 높이 20m, 지름은 1m에 달할 정도로 웅장함을 자랑하며, 제주도 등 따뜻한 남쪽 섬지역에서 심하는 수종이다.

해남군뿐 아니라 고풍과 신안 등 상대적으로 기후가 따뜻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도 난대수종으로 가로수를 교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증도 등 일부 관광지에 종려나무 등 난대수종을 가로수로 심거나 경관을 조성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맞춰 난대수종의 식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여름철새 남쪽나라 안 간다

지구 온난화 영향과 도시 열섬현상으로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떠나지 않는 여름철새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 녹색연합은 2일 황룡강, 광주천, 영산강 상류 등 영산강 본·지류 28개 지점을 대상으로 철새 서식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여름철새 190여마리가 지금까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호남대 이우표 교수팀과 4차례에 걸쳐 이를 지역에 조사해왔다.

이는 지난 2006년 같은 시기의 조사 때보다 40여마리가 늘어난 것으로 여름철새의 덫새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야행성 조류인 해오라기와 빠진 점을 감안하면 여름철새의 개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덧새화된 여름철새는 영산강의 지류와 본류가 합쳐지는 지점에서 많이 발견됐다.

광주천과 영산강의 합류지점에서는 왜가리 20마리를 비롯, 종대백로 3마리, 쇠백로 1마리가 관찰됐다. 담양습지, 영산강·황룡강이 만나는 지점 등에서도 21마리와 19마리의 여름철새가 발견됐다. 송산유원지와 광주시청 뒤 천변에서도 13마리와 12마리의 여름철새가 포착됐다.

이번에 발견된 여름철새는 왜가리가 81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백로(75마리) ▲종대백로(34마리) ▲중백로(2마리) ▲해오라기(2마리) 순이다.

특히 여름철새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12월에 발견된 55마리와 비교하면 5년 새 3배가 넘는 수치여서 철새의 덫새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필상기자 kps@kwangju.co.kr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2일 광주 롯데백화점 앞에서 크리스마스 때 조손가정 350세대에 전달할 선물을 보따리에 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BIE,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공식 승인

조직위, 기업 유치 활동 시동

세계박람회기구(BIE)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를 공식 승인했다.

〈관련기사 3면〉



비 기본계획을 완벽한 것으로 평가하고 154개 회원국의 의결을 거쳐 여수박람회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여수세계박람회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됐다.

여수박람회 조직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박람회장 공사에 들어가는 한편 참가국 대표 초청, 기업 유치 등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장승우 조직위원장은 "박람회 계획이 공식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대내적으로는 박람회장 건설에, 대외적으로는 참가국과 기업 유치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빈센테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박람회 계획에 대한 승인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수박람회에 대한 BIE의 승인은 올해 스페인에서 열린 사라고사 박람회 등 지금까지 열렸던 박람회에 비해 1년 이상 빨리 이뤄진 것이다.

장 피에르 라퐁 BIE 집행위원장은 "올해 열린 스페인 사라고사 박람회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면 여수박람회 개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행기자 redplane@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심자

광주 6,055명·전남 3만5,769명

광주·전남지역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무려 4만1천82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비료 및 벼 수매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가운데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명단 공개가 이뤄질 경우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 "감사원이 제출한 직

불금 수령자 중 비료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부정 수령 의심자 28만3천47명에 대해 권역별·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광주 6천55명, 전남 3만5천769명 명이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수령자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이 직불금을 수령한 광주지역 공무원은 총 1천126명이며, 전남지역은 4천943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수자는 감사원이 2006년도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2007~2008년도 분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특히 행안부는 3일까지 각 시·도별로 공무원들에 대한 명단을 넘겨 받아 부당 수령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 12월 30일
전국 1000여개 매장에서
'ARITAUM' 브랜드를 출시합니다.
ARITAUM은 아름다움과 자연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제작하는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입니다.

ARITAUM



2008년 12월 30일
2인 1실 가족사 Power 감사회

호남한샘 학원